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 장판타날기와의 출현시기 검토

차 순 철*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사
- III. 경주지역 기와가마의 분포와 조업시기
- IV. 통일신라 기와생산과 장판타날기와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에서 장판타날기와의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문제는 새로운 기와제작기술이 도입된 것보다는 기존에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에 있던 기와제작기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공통된 제작기술을 유지하던 기와생산체제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중판타날기와의라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기와가 생산되던 신라사회에서 중앙 관사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왕경 외곽 또는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와제작 기술인 장판타날기와의가 생산되면서 건물에 사용하는 기와의 기준이 변화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분명한 연대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경주 외곽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여러 기와가마 출토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라왕경에 기와를 공급했던 기와가마들은 통일신라시대 후기까지도 내성(內省)에 속한 와기전(瓦器典)의 관리감독아래에서 중판타날기와를 생산했다고 보여지며, 신라왕경 외곽에 위치한 기와가마들은 이러한 와기전의 관리감독을 벗어

*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인은 당시 정치혼란과 호족세력의 출현과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와 제작기술인 장판타날기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그 출현시기는 다른 지방의 장판타날기와의 출토사례와 제작시기 그리고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내 기와가마의 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신라 헌덕왕 14년(822) 이후로 추정된다.

주제어 : 통일신라시대, 경주, 중판타날기와, 장판타날기와

I. 머리말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경주지역 내 기와가마는 월성을 중심으로 사방 각지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조업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남쪽의 내남면 화곡리 일대와 북쪽의 천북면 일대 그리고 안강읍 육통리 지역에서 기와를 제작하다가, 점차 현곡면 다경리와 금장리로 기와가마가 옮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와가마가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면 북쪽인 천북면 동산리, 물천리, 신당리 그리고 화산리 일대, 서쪽인 현곡면 금장리와 석장동, 효현동, 북서쪽인 건천읍 모량리, 방내리, 화천리와 안강읍 육통리, 갑산리 일대, 남서쪽인 내남면 덕천리, 망성리, 화곡리 일대와 남쪽인 경주 남산 장창곡과 동방동 그리고 외동읍 문산리 등에서 확인되며, 이는 신라왕경 주변과 그 변경지역 일대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와가마는 기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 근처에 입지한 모습으로 추정되며 특히 천북면과 내남면 그리고 현곡면 일대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기와는 대부분의 기와가마가 이 지역에 입지한 모습이며, 6세기 전반~중반¹⁾에 손곡동·물천리요지 C- I 지구에서 출토된 토기 제작방법으로 만든 암, 수키와와 고식 연화문수막새 그리고 토기구연암막새²⁾가 제작되면서 기와사용이 시작된다. 이후 내남면 망성리 와요에서는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해당하는 당 연호를 사용한 <단판> 타날의 <의봉4년개토>명 명문 와와 함께 공반된 연화문수막새, 무악식 당초문암막새가 월성과 동궁 일원에 사용되면서 특정기와가 대량으로 사용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관급기와의 생산과 공급이 일반화된 상황과 이후 중판타날기와가 생산됨에도 특정 수요를 위한 단판타날기와가 제작된 모습을 알려준다.³⁾ 이후 현곡면 다경리 와요와 금장리 와요를 비롯한 여러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각종 기와들은 기와 등에 <중판> 선조문이 타날된 기와로 통일신라시대 말까지 제작되며, 월성과 황룡사를 비롯한 도성 내 중요 건물의 지붕을 보호하고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1) 경주 인왕동 566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무와통식 토기제작수법으로 만든 기와로 볼 때, 신라왕경 지역에서 6세기 초보다 기와의 제작시기가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이루어진 발굴조사 성과로 볼 때 발견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2) 차순철, 「경주 월성 출토 토기구연암막새에 대하여」, 『신라기와의 편년』 제15회 한국기와학회 정기학술대회, 국립경주박물관·한국기와학회, 2018.

3) 차순철, 「신라 단판타날 평와의 출현과 의미에 대한 검토-호상타날과 횡방향타날의 구분과 특징-」, 『한일문화재논총Ⅱ-2010 한일문화재논집』,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2010.

기와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타날판은 단판, 중판, 장판 순으로 길이가 길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모습은 시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시간성과는 별도로 경주지역에서 장판타날된 기와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⁵⁾ 이러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신라가 기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규격화된 기와를 전국적으로 사용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청해진을 비롯한 지방에서 제작된 명문와들 중 장판타날을 사용한 사례가 많은 점 그리고 현재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기와 중 장판기와가 확인된 사례가 미미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최근 경주시 외곽에서 발굴조사된 기와가마를 중심으로 새롭게 확인된 장판타날기와를 소개하고, 제작 시기를 추정하여 기와의 생산과 사용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사

신라기와에 대한 연구는 시기구분과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작수법⁶⁾과 고식연화문수막새와 중판복엽연화문수막새를 경계로 한 구분이 일반적이며,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기와의 수급방법과 구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⁷⁾

4) 조성윤, 「경주 출토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제작시기와 그 의미」, 『불교고고학』2,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2.

차순철, 「경주지역 평기와의 타날형태 변화에 대한 검토-단판·중판·인장 그리고 장판으로-」, 『문화재』제4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5) 조성윤, 「신라 장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경주제작여부에 대하여」, 『이화사학연구』30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6) 최태신, 『평와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3.

최맹식, 「통일신라 평기와 연구」, 『호서고고학』6·7합집, 호서고고학회, 2002.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4.

최영희, 「신라 고식수막새의 제작기법과 계통」, 『한국상고사학보』제70호, 한국상고사학회, 2010.

최영희, 「통일신라식기와의 성립과 조와체제의 변화」, 『영남고고학』70호, 영남고고학회, 2014.

7) 김성규, 「다경와요 출토 신라와전소고」, 『미술자료』33호, 국립중앙박물관, 1983.

박홍국,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 와요지와 출토와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5호, 영남고고학회, 1987.

김유식, 「7~8세기 신라 기와의 수급」,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국립경주박물관, 2000.

차순철, 「경주지역 사원출토 평와의 수급관계 고찰-전용와·공용와·교류와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제5집, 불교미술사학회, 2007.

또한 기와제작에 사용된 타날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를 통한 기와의 사용 시기 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기와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타날판은 단판, 중판, 장판 순으로 점점 타날판의 길이가 길어지는 모습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모습은 기와제작기술이 변화하는 모습과 시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와 타날판의 변화를 검토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성윤은 경주지역의 안압지에서 출토된 암키와의 타날문양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단판 타날문양의 암키와의 상한연대는 7세기 말이고 하한연대는 9~10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⁸⁾ 또한 안압지에서 출토된 기와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고신라시대의 유구와 연못이 축조되는 674년과 건물 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679년으로 구분하고, 고식연화문수막새와 구분되는 안압지 창건기 기와를 설정하고 있다.⁹⁾ 그리고 통일기까지 경주지역에서는 장판 타날을 한 기와가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¹⁰⁾

이인숙은 단판 타날판은 삼국시대~679년 전후까지 사용되었고, 단판에서 중판으로 변화되었는데 단판의 사용은 중판과 함께 사용되는 짧은 과도기를 거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단판 타날판의 사용시기는 679년을 전후하며 중판 타날판은 679년 전후~847년 이전으로 그 상한연대는 단판의 하한연대와 일치하며 장도 청해진 유적과 영동 계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중판 및 장판 기와의의 공반관계에 근거하여 하한연대를 잡고 있다. 특히 장도 청해진유적이 운영된 기간이 828년~851년까지이므로 그 하한을 851년으로 볼 수 있지만,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회창 칠년(會昌七年:847)'명 이후에 제작된 명문와는 장판타날 기와이므로 847년을 하한연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판 타날판의 제작은 장도 청해진 유적이 설치된 828년까지 소급해서 볼 수 있지만, 중판과 장판 기와가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847년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김지영, 「경주지역 삼국~통일신라시대 막새기와의 유통」, 『영남문화재연구』24, 영남문화재단 연구원, 2011.

김지영, 『경주지역 신라 평기와 유통체계의 변화』,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조성윤, 「경주 출토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제작시기와 그 의미」, 『불교고고학』제2호, 위덕대학교박물관, 2002.

9) 조성윤, 「신라 와로 본 안압지 축조에 대하여」, 『불교고고학』제6호, 위덕대학교박물관, 2006.

10) 통일신라시대말까지 경주지역에서 장판기와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는 당시 지방에서 먼저 장판기와의 발생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제와기술(타날판)이 경주로 들어왔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당시 신라왕경을 제외한 지방사회, 즉 9주 5소경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사용된 장판기와의 중심지에 늦게 보급되었다는 의견으로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조성윤, 「신라 장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경주제작여부에 대하여」, 『이화사학연구』제30집, 이화사학연구소, 2003.

추정하고 있다.¹¹⁾

다만 경주지역에서 장판타날기와 출현한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에서 출현한 이후 경주지역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차순철은 신라의 중판타날기와 전국에 보급된 원인을 신라에 의한 삼국의 병합결과 국가별로 각각 특징이 있던 제와기술이 신라로 통일된 것으로 보고, 이는 신라의 통일된 규격이 보급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경주지역에서 장판타날기와는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경주 삼랑사3길 유적>에서 출토된 어골문 평기와의 존재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경주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장판타날기와의 타날판에 새겨진 문양을 보면 선조문, 어골문, 사격자문 등과 다소 복잡해진 기하학문과 각종 문자(연호, 지명 등)가 확인된 점으로 볼 때, 경주지역에서도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경주 삼랑사3길 유적> 출토 장판타날 암기와¹²⁾는 통일신라시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중판타날 기와와 함께 확인된 유물로 경주지역에서 확인된 장판타날기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하였다.¹³⁾ 그러나 다른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유환성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중판이며, 고려시대에는 장판타날이 사용되었으며, 경주에서 출토된 사찰명 평기와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는 타날판의 길이가 중판이 사용되었고 장판은 없는 것 같다.”는 조성윤의 의견을 따르면서,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엽에 도장으로 사찰명을 찍은 평기와가 등장하며, 고려시대 부터는 타날판에 명문을 음각하며 장판타날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와제작과정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았다.¹⁴⁾

현재까지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경주지역에서 장판타날기와는 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으며,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경주 시내 유적에서 확인되는 유물 중 기와는 중판타날기와가 대부분인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11)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2)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삼랑사3길유적』현장설명회자료1, 2000.

13) 이 암기와는 등무늬가 장판의 태선어골문으로 이후 고려시대의 기와에 나타난 어골문의 조형을 보여주며,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적어도 9세기경에는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순철, 「경주지역 평기와의 타날형태변화에 대한 검토 -단판·중판·인장 그리고 장판으로」, 『문화재』제40호, 2007.

14) 유환성, 「경주 출토 나말려초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과정」, 『신라사학보』19, 신라사학회, 2010, 157~160쪽.

이상과 같은 연구자들의 견해로 살펴보면 장판타날기와가 경주지역에서 사용된 시기와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굴자료 중 비교자료를 찾고 이와 대조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본 검토에서는 최근 경주시 외곽에 위치한 기와가마에서 확인된 장판타날기와 자료를 중심으로 경주지역 내 장판타날기와의 생산과 소비과정을 추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Ⅲ. 경주지역 기와가마의 분포와 조업시기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기와가마를 살펴보면 여러 기와가마가 모여서 조성된 경우와 단독으로 입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업시기가 한 시기에 그치거나 여러 시기에 걸친 모습이 확인된다. 기와가마의 조업시기 중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을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 후기~고려시대 전기에 조업한 모습이며, 이는 한 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기와를 전문적으로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기와가마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 중 장판타날기와가 출토된 유적은 6개소이다. 이 중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속하고 장판기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마와 기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주지역의 기와가마

유적	조사내용	보고서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A지구)	기와가마 1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경주경마장예정부지 A지구』, 2004.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B지구)	기와가마 1기; 수혈주거지, 굴입주건물지, 폐기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경주 손곡동·물천리(Ⅲ) -경마장 예정부지(사적 430호) B지구-』, 2003.
경주 손곡동·물천리유적 (C지구)	수혈, 회구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주경마장예정부지 C-1지구』, 1999.

유적	조사내용	보고서
경주 망성리요지	기와가마, 폐기장	박홍국,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 와요지와 출토와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5, 영남고고학회, 1987.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2000.
경주 망성리 487번지 유적	수혈, 구상유구	한국문화재재단, 「5. 경주 망성리 487번지 유적」,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V-경북2-』, 2016.
경주 망성리 윗골들유적	채토장, 수혈, 도로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1호선 인양-영천간 확장공사(3공구) 부지 내 유적Ⅱ 경주 용장리 강정고분군·망성리 윗골들유적』, 2017.
경주 내남면 용장리 강정고분군 내 폐기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246-4번지 일원)	폐기장	영남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1호선 인양-영천간 확장공사(3공구) 부지 내 유적Ⅱ 경주 용장리 강정고분군·망성리 윗골들유적』, 2017.
경주 다경와요지	폐기장	김성구, 「다경와요 출토 신라와전소고」, 『미술자료』33호, 국립중앙박물관, 1983.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2000.
경주 다경와요지 (경주 현곡면 하구리 990-1번지)	수혈 14기	동국문화재연구원·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경주 하구리 990-10번지 유적-금장~하구간 도로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3차)-』, 2016.
경주 하구리유적 (경주 현곡면 하구리 997-1번지 일원)	폐기장	중앙문화재연구원, 『경주 하구리 도로개설구간내 경주 하구리유적』, 2006.
경주 하구리 유적 (경주 현곡면 하구리 산12-2번지)	기와가마 1기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하구리 유적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6공구 경주 하구리 구역내』, 2013.
경주 금장리유적 (경주 청령~현곡간 지방도로)	기와가마 2기, 폐기장, 수혈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주 청령-현곡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경주 금장리유적』, 2007.
경주 현곡복지회관 및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부지	폐기장, 도로, 기와가마(고려시대), 공방, 채토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의 문화유적 XV -경주 현곡 복지회관 및 주민건강 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유적-』, 2011.
경주 금장리 생산유적 (경주 현곡면 금장리 218번지)	기와가마 3기, 수혈 57기(회구, 폐기장, 채토장)	성립문화재연구원, 『경주 금장리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청사 신축부지 내 경주 금장리 생산유적』, 2015.
경주 금장리 221-4번지 유적	폐와무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경주 금장리 221-4번지 유적」,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 -대구·경북1-』, 2011.
경주 석장동 852번지 유적	기와가마 1기, 구, 수혈	신라문화유산조사단, 「경주 석장동 852번지 유적」, 『경주의 문화유산Ⅱ』, 2008.

유적	조사내용	보고서
경주 효현동 330번지 유적	기와가마 2기	진흥문화재연구원, 『경주 효현동 330번지 유적』, 2019.
경주 동방동 352-4번지 유적	기와가마 9기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동방동 기와가마터』, 1993.
경주 장창곡 신라와요지	폐기장	위덕대학교박물관, 『경주 남산 장창곡 신라와요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1.
경주 천북면 갈곡리 576번지 유적	점토채취장	한국문화재재단, 『7. 경주 갈곡리 576번지 유적』,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경북1-』, 2018.
경주 천북면 동산리 산36-1번지 유적	토와겸업가마 6기, 작업장, 수혈	천년문화재연구원, 『경주 동산리 산36-1번지 유적 - 경주 동산리 산36-1번지 일원 축사건립부지 내 유적』, 2018.
경주 천북면 동산리 401번지 유적	기와가마 2기, 폐기장, 수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천북 동산리 401번지 일원 아파트건립부지 내 경주 동산리유적Ⅲ-삼국~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근대-』, 2010.
경주 천북면 신당리 산7번지 유적	기와가마 2기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2015.
경주 내남면 덕천리 이조리유적	기와가마 1기	한국철도시설공단·기호문화재연구원, 『경주 덕천리 이조리유적-울산-포항 북선전철 제4공구(덕천리) 문화재 시발굴조사』 제2권, 2017.
경주 건천읍 모량리 와요지	기와가마 5기, 폐기장	한빛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제4공구)부지 내 경주 조천리~울동 유적Ⅱ - 경주 방내리 유물산포지 외 10개소-』, 2018.
경주 건천읍 방내리 생활유적	기와가마 9기(통일신라~고려)	영남문화재연구원,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2007.
경주 건천읍 방내리 기와가마	기와가마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방내리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구간 내 경주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 2014.
경주 건천읍 화천리 산251-1번지 유적	기와가마 9기(삼국), 3기(통일신라), 8기(고려), 1기(조선)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부지내(B구역) 경주 화천리 산251-1유적Ⅱ -원삼국~조선시대 생활·생산-』, 2012.
경주 안강읍 갑산사지	기와가마 1기	한국문화재재단, 『1. 경주 갑산리 711-4번지 외 1필지 유적, 경주 갑산리 711-5번지 외 5필지 유적』, 『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Ⅷ-경북1-』, 2015.

유적	조사내용	보고서
경주 안강읍 육동리 와요지	기와가마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2000.
경주 안강읍 양월리 436-5번지	기와가마 1기, 폐기장, 수혈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의 문화유산XII-경주 양월리 463-5번지 내 유적』, 2010.
경주 문산리유적 (경주 외동읍 문산리 산75번지 일원)	기와가마 4기, 폐기장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문산리 청동기시대 유적 -II구역-』, 2010.

표 1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판타날기와를 생산한 기와가마는 대부분 경주시 내 외곽지역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준다.

1.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산7번지 유적

공장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B지구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가마 2기와 건물지 1동¹⁵⁾이 조사되었다.¹⁶⁾ 기와가마는 구릉 서쪽에 위치하며 건물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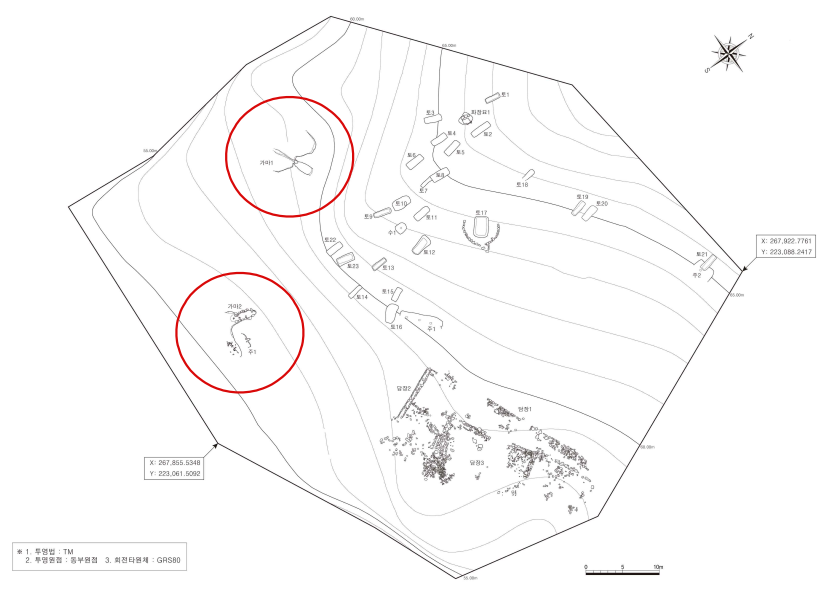













그림 1.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산7번지 유적 B구역 유구배치도(계림문화재연구원 2015)

¹⁵⁾ 조사지는 담장 3기로 보고했지만 공간구조로 볼 때 건물을 둘러싼 담장과 건물지로 추정된다.

¹⁶⁾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2015.

구릉 남동쪽 사면에 위치하며 담장 안쪽에 장방형 건물이 위치한다. 기와가마의 구조는 반지하식 등으로 가마 앞쪽에는 회구부가 위치한다.

표 2.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 출토유물

유구	연화문 수막새	평기와	
B-2호 기와가마			
B-1호 담장			
			
B-3호 담장 (건물지)			
			
	용강동원지		

B-1호 기와가마 출토유물은 격자문과 선조문, ×자문의 중판타날 암키와이며, B-2호 기와가마는 할석을 이용하여 벽체를 만들었으며, 출토유물 중 장판타날 암, 수키와는 내면에 사절흔적이 있고, 등에는 사격자문+점열문, 선조문+방

곽문, 어골문과 중판타날된 선조문을 타날하였다. 소성실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는 건물지 B-1호 담장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와 동범와로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함께 확인된다.

B-3호 담장은 장방향 건물지로 추정되며 평면형태로 볼 때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의 건물지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중판 단엽연화문 곱새기와와 중판, 장판타날기와이다. 건물에 사용된 장판타날기와는 건물지와 인접한 B-2호 기와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일한 장판타날기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조문 중앙에 방곽문 등을 배치한 점으로 볼 때 유사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B-3호 담장에서 출토된 중판 단엽연화문 곱새기와는 주연부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주 용강동 원지유적¹⁷⁾ 건물지 1 출토 연화문수막새와 동일한 동범와인 점으로 볼 때, 유적의 상한시기는 8세기 대로 추정된다.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제작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 출토기와 세부 속성

종류	문양	타날판/타날방향	상면조정/범위	단부조정	분할방법		점토판접합흔
					와도흔	추가깎기	
B-2호 가마 수키와 63	사격자문	장판/중방향		○ 물손질	내→외 전면		사절흔
B-2호 가마 수키와 67	태선문+방곽	장판/중방향			내→외		사절흔
B-2호 가마 수키와 67	태선문+어골문	장판/중방향			내→외 1/2		사절흔
B-2호 가마 수키와 72	선조문	중판/호상타날		○ 물손질	외→내 전면		
B-2호 가마 수키와 73	무문		광단부/내면깎기	○ 물손질	외→내 전면		점토판접합흔
B-1호 담장 수키와 78	선문+격자문	장판/중방향			내→외 1/2		사절흔
B-1호 담장 수키와 79	선문	- / 중방향					사절흔
B-1호 담장 암키와 82	선문+원문	장판/중방향	광단부	○ 물손질	내→외 1/2		점토판접합흔
B-3호 담장 수키와 85	선문	중판/호상타날	광단부/내면깎기	○	내→외 외→내 1/2		

17)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용강동 원지유적』, 2001, 68쪽 도면 31-8.

종류	문양	타날판/ 타날방향	상면조정/ 범위	단부 조정	분할방법		점토판 접합흔
					와도흔	추가 깎기	
B-3호 담장 암키와 86	선문	중판/ 호상타날	광단부/ 내면깎기	○	내→외 외→내 1/2		
B-3호 담장 암키와 88	선문+방 곽	장판/ 중방향			내→외 1/3		사절흔

유적에서 확인된 기와가마의 조업시기는 출토유물로 볼 때 B-1호 기와가마가 선조업을 한 이후에 B-2호 기와가마가 조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와 인접하여 기와가마가 위치한 점으로 볼 때, 건물 건축에 필요한 기와를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B-2호 기와가마 출토유물 중 연화문수막새와 장판타날기와의 함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적어도 2번 이상 가마에서 기와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며, 마지막 조업 시기에는 장판타날기와를 제작했다고 판단된다.

2.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58-35번지 유적(모량리 와요지)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부지에 위치한 <경주 모량리 와요지Ⅱ>¹⁸⁾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기와가마 5기, 폐기장 2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¹⁹⁾ 1호, 3호, 4호 기와가마는 소성실 안에는 기와를 이용하여 계단식 단을 만든 모습이 확인된다.

1호 기와가마의 경우 소성실과 연소실 사이 양쪽 벽쪽에 암키와 여러 매를 쌓아서 벽처럼 만든 시설이 확인된다. 소성실 바닥에 횡방향으로 깔아놓은 기와 옆에 사용된 기와는 선조문 중판, 장판타날기와의 확인되며 연화문수막새 1매가 출토되었다.

3호 기와가마의 소성실 바닥에 횡방향으로 깔아놓은 기와 옆에 놓인 기와 중 중판 선조문이 타날된 암키와와 사격자문이 시문된 장판기와의 함께 확인된다. 소성 당시 제작된 기와는 포개진 모습으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중판 선조문이 타날된 암키와들이다.

4호 기와가마는 지하식 구조로 폐기된 이후 1호 가마 폐기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성실 내부에서 출토된 출토된 기와는 모두 바닥에 횡방향으

¹⁸⁾ 경주시·국립경주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경주시-』, 2008.

¹⁹⁾ 한국도로공사·한빛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제4공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조전리~울동유적Ⅱ -경주 방내리 유물산포지 외 10개소(본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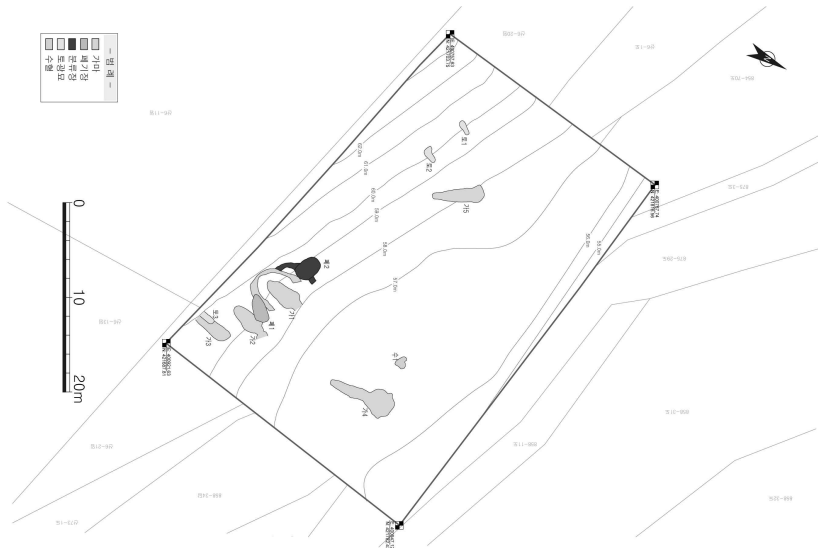


그림 2. 경주 모랑리 와요지 유구 배치도(한국도로공사·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로 깔아놓은 기와 열에 사용된 기와들이다. 복합문이 시문된 장판타날기와와 등 부분을 물손질로 정면한 수키와가 확인된다.

1호 폐기장은 3호 기와가마의 폐기장으로 추정되며 선조문+격자문의 중판 타날기와와 선조문+복합문의 장판타날기와가 함께 확인된다.

표 4. 경주 모랑리와요지 출토유물

유구	연화문 수막새	평기와	
1호 기와가마			
3호 기와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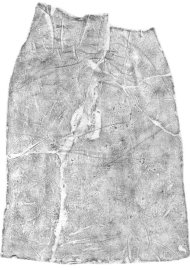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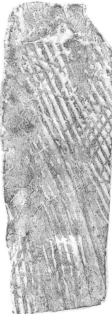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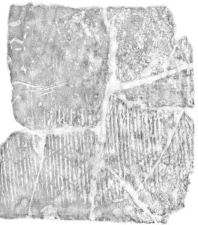

유구	연화문 수막새	평기와	
4호 기와가마			
1호 폐기장 (3호 기와가마?)			
2호 폐기장 (1호 기와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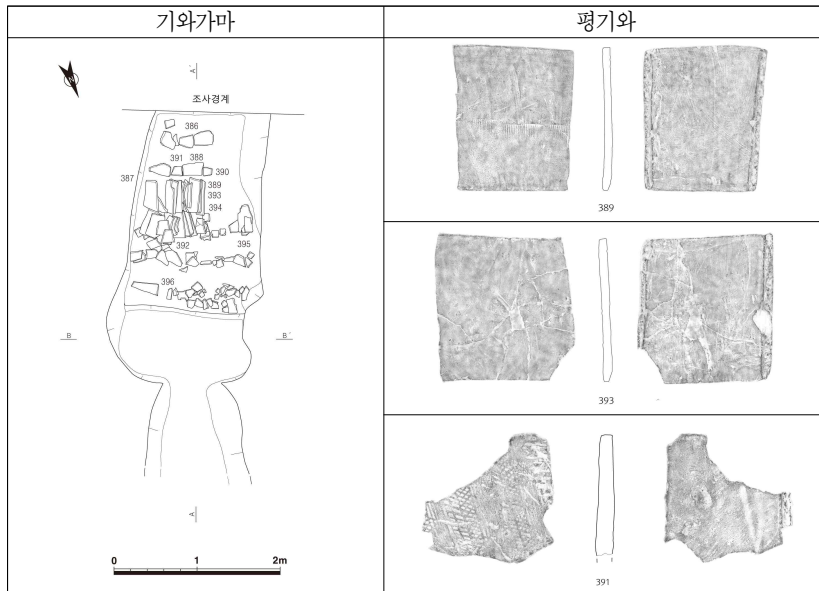
표 5. 경주 모량리와요지 출토기와 세부 속성

종류	문양	타날관/ 타날방향	상면조정/ 범위	단부 조정	분할방법		점도관 접합흔
					와도흔	추가 깎기	
1호 가마 기와 열 암키와 370	선조문/ 물손질	장관/ 중방향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1호 가마 기와 열 암키와 371	선조문/ 물손질	중관/ 중방향	광단부/ 내면깎기		내→외		사절흔 점도관 접합흔
1호 가마 기와 열 암키와 382	태선문+ 어골문	중관/ 호상타날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3호 가마 기와 열 암키와 386	선조문	중관/ 호상타날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종류	문양	타날판/ 타날방향	상면조정/ 범위	단부 조정	분할방법		점토판 접합흔
					와도흔	추가 깎기	
3호 가마 기와 열 입키와 391	격자문	장판/ 종방향		○ 물손질	내→외 1/2		
3호 가마 소성실 압키와 387	선조문	중판/ 호상타날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3호 가마 소성실 압키와 393	무문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4호 가마 기와 열 압키와 397	복합문	중판?/ 종방향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2		사절흔
4호 가마 기와열 수키와 398	무문	-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점토판 접합흔
4호 가마 기와열 수키와 399	무문	-	광단부/ 내면깎기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2호 폐기장은 1호 기와가마와 인접한 모습이며 북동쪽에는 4호 기와가마가 위치한다. 내부 석렬 주변에서는 1호 기와가마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무문 및 장판타날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들 기와가마 소성실과 소성실 내 기와 열에서 출토된 기와들의 특징은 표 6과 같다.

표 6. 경주 모량리 3호 기와가마와 출토 유물



경주 모량리 와요는 중판타날기와와 장판타날기가 모두 확인된 기와가마로 조업시기는 통일신라시대 말에서 고려시대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판타날기와가 기와가마 소성실 안에 만들어진 횡방향 기와 열에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장판타날기와가 제작된 시점은 기와가마가 조업을 시작하거나 이후 중간에 보수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호 기와가마 소성실 내부에서 중판 선조문이 타날된 기와(387, 389)와 무문 기와(393, 394)가 소성되는 중에 받침으로 사용된 장판 타날기와(390, 391)로 볼 때, 두 가지 타날판이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소편이지만 장판타날기와편(392)이 같이 확인된 점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판과 장판타날의 사용에서 나타난 차이가 와공의 차이인지 기와 제작기술의 차이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1호 기와가마에서 출토된 퇴화된 연화문수막새로 볼 때, 모량리 기와가마의 조업시기는 적어도 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3.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기와가마(방내리 생활유적)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과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 부지 내 위치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통일신라(?)~조선시대의 대규모 기와가마가 각각 발굴조사되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경주구간 중 III구간에서는 통일신라(?)~고려시대 기와가마 9기와 수혈 6기 등이 조사되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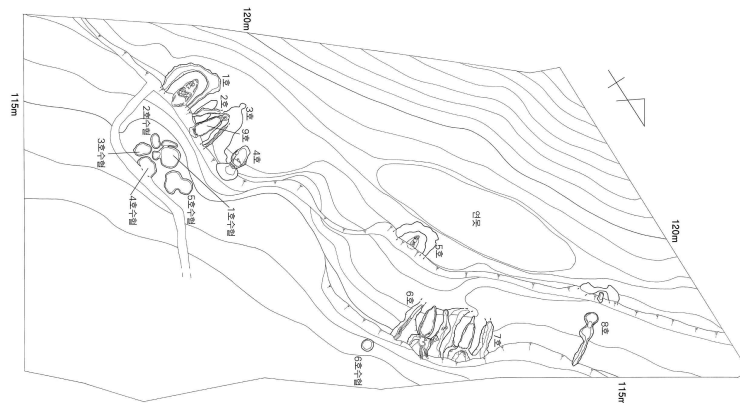


그림 3.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유구 배치도(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²⁰⁾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방사능탄소연대측정결과와 고고지자기연대측정결과를 근거로 유적의 상한시기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영남문화재연구원,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2007.

기와가마 아래쪽에는 채토장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위치하며, 가장 후대에 축조된 9호 기와가마는 2호, 3호 기와가마 상부에 중복된 모습이며, 7호 기와가마의 외곽 구를 6호 기와가마의 외곽 구와 같이 사용한 모습으로 볼 때, 동시에 조업했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기 구분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유적의 전체 조업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표 7. 방내리 생활유적 기와가마 연대측정결과

호수	방사능탄소연대측정	고고지자기연대측정
2호 가마		1105±45 또는 740±20
4호 가마	1050±50(970년)	1190±35 또는 700±30
6호 가마	1190±60(830년)	1060±60 또는 770±30
7호 가마	1000±50(1060년)	1105±20 또는 735±10
8호 가마	1210±60(820년)	
5호 수혈	1020±50(1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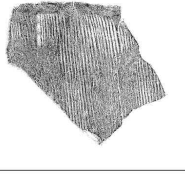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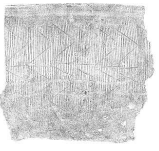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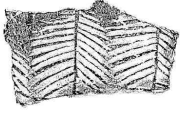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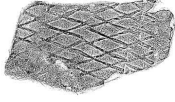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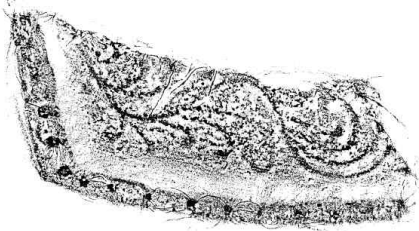
방내리 생활유적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기와는 모두 장판타날을 사용한 기와로 선조문(Ⅰ), 복합선조문(Ⅱ), 어골문(Ⅲ), 사격자문(Ⅳ), 고사리문(Ⅴ), 화문(Ⅵ), 복합문(Ⅶ) 등이 확인되며, Ⅲ-3호 기와가마에서는 귀면외편이, Ⅲ-7호 기와가마에서는 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가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기와가마에서 동일한 장판타날기와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대측정결과를 살펴볼 때 820~1060년 사이에 조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은 기와 외에는 시기를 알 수 있는 토기 및 자기류가 거의 출토되지 않은 점은 기와생산작업만을 전담하여 조업되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Ⅲ-3호 기와가마 회구부에서 출토된 병 구연부²¹⁾, Ⅲ-7호 기와가마 출토 연화문수막새와 당초문암막새로 볼 때, 조업시기는 고고지자기연대측정결과와 인접 지역에서 조사된 기와가마의 연대를 고려할 때 고려시대 전기로 추정되지만, 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한다면 통일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부터 기와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21)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Ⅲ-3호 기와가마에서 출토된 병 구연부는 그 형태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보다는 고려시대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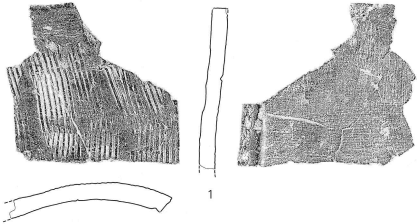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음양리·사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유적-』, 2002, 417쪽 도면10-①~⑦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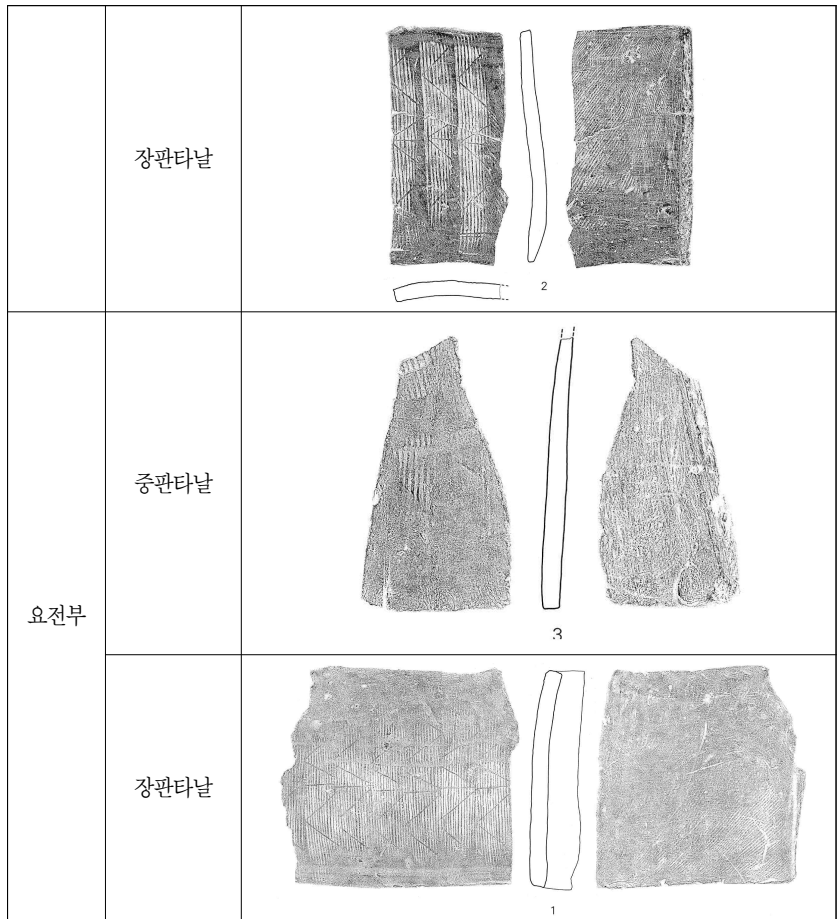
표 8.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출토유물(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I	II	III	IV
			
V	VI a b		VII
			
방내리 기와가마 출토 장판타날문양 각종			
			
III-7호 기와가마 출토 연화문수막새 / 당초문암막새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유물은 III-7호 기와가마 요전부에서 출토된 중 판 선조문(I) 토수기와와 III-7호 기와가마의 1차 연소실에서 출토된 장판 복합 선조문(II) 토수기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 III-7호 가마 출토 중판/장판타날기와

배수구	중판타날	
-----	------	--



III-7호 기와가마 소성실 안에서 중판타날기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요전부와 배수구에서 출토된 중판 선조문 기와는 소편이지만, 방내리 생활유적 내 기와가마 안에서 중판타날기와가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1차 연소실에서 출토된 기와와 요전부에서 폐기목적으로 사용된 기와 사이에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본다면,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중판타날에서 장판타날로 기와 제작기술이 변화하며, 기와가마의 조업시기 역시 고려시대가 되면서 대규모 조업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주 모량리 와요지에서 태선문 장판타날을 한 기와가 출토된 점으로 볼 때, 본 유적의 선조문(I) 기와와 관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대측정결과로 도출된 신라 헌덕왕 12년(820)과 흥덕왕 5년(830)을 상한 연대로 본다면 늦어도 9세기 후반부터는 조와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 부지 내 위치한 <경주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은 방내리 생활유적 주변에 위치하며 조사 결과 경부고속 철도를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조선 전기대로 추정되는 기와가마 10기와 수혈 11 기, 구 2기가 확인되었고, 남쪽에서는 고려시대 전기 기와가마 3기와 조선시대 전기대로 추정되는 기와가마 6기, 구 1기가 위치한 모습이 확인되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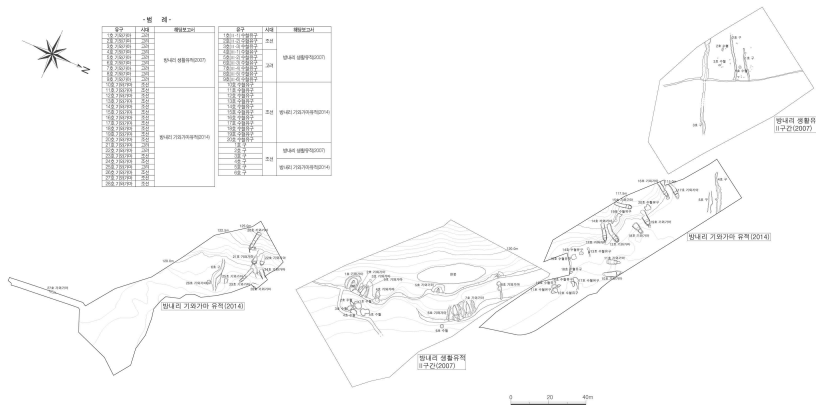


그림 4. 경주 방내리 기와가마유적 유구 배치도(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표 10. 경주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 출토유물

중선문()선/X선/ <선/사선 부가)		고사리문	
			어골문
고사리복합문	중선문+화문	격자문	

²²⁾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방내리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구간 내 경주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 2014.

고려시대 기와가마는 21, 22, 25호 기와가마로 모두 3기이다. 평면형태는 제형으로 연소실의 너비가 길이에 비해 넓은 모습을 보여준다.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기와는 모두 장판타날을 사용한 기와로 방내리 생활유적에서 확인된 문양과 동일한 모습이 확인된다.

방내리 기와가마에 대한 연대측정은 고고지자기연대측정만 이루어졌는데 방내리 생활유적에서 조사된 기와가마보다 늦은 조선시대 전기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방내리 생활유적과 달리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의 전체 조업시기는 고려시대 전기이전부터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된다.

표 11. 방내리 기와가마 연대측정결과

호수	고고지자기연대측정
11호 가마	1380±15 또는 1840±50
13호 가마	1380±10 또는 1795±30
14호 가마	1370±15 또는 1810±40
15호 가마	1380±15 또는 1710~1800년
16호 가마	1390±15 또는 1710±30
18호 수혈	1395±15 또는 1755±30

방내리 생활유적과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은 한 지역에 30기의 기와가마가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며, 통일신라시대 말인 9세기 대 기와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생산과 관련된 고려시대 전기에서 조선시대 전기까지 오랜 기간 조와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때, 경주지역 안에서 기와생산을 전담한 생산유적인 수공업전담공방인 와촌(瓦村)²³⁾으로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4.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63-6번지 유적

유적은 안강 구성(龜城) 남쪽에 위치하며 발굴조사결과 기와가마 1기, 폐기장 1기, 구상유구 1기, 수혈 4기, 우물 1기가 조사되었다.²⁴⁾

기와가마 내부에서는 주름무늬병편이 출토되었고 폐기장에서는 연화문수막새, 중판타날기와, 장판타날기와, 청동용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구상유구에서는 연화문수막새, 선문암막새, 장판타날기와가 확인되며 수혈에서는 중판타날기와와 장판타날기와가 출토되었다.

23) 고려시대 수공업생산을 전담한 향, 소, 부곡의 존재를 고려할 때, 방내리에서 모량리 일대에 기와가마가 집중된 모습은 당시 행정구획과 기와생산집단의 영역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2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의 문화유산Ⅲ-경주 양월리 463-5번지 내 유적』,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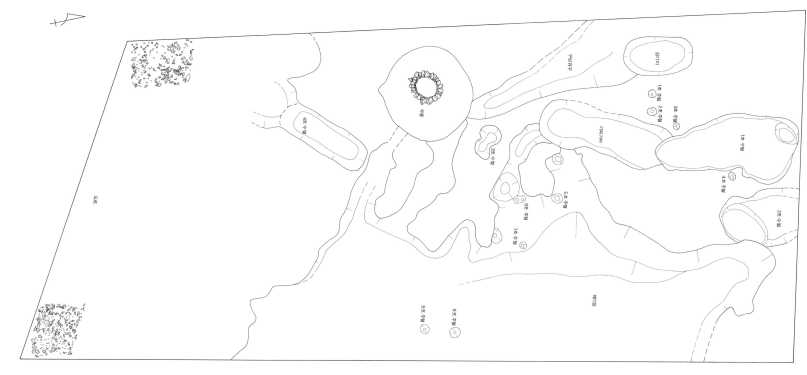


그림 5. 경주 양월리 463-6번지 유적 유구배치도(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표 12. 경주 양월리 463-6번지 유적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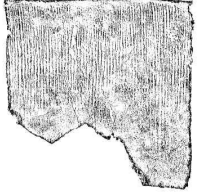
유구	암·수막새/토기 등	평기와	
기와가마			
폐기장			
구상유구	 		
1호 수혈	  		

표 13. 경주 양월리 463-6번지 유적 출토기와 세부 속성

종류	문양	타날판/ 타날방향	상면조정/ 범위	단부 조정	분할방법		점토판접 합흔
					와도흔	추가 깎기	
가마 출토 암키와	선문/ 물손질	-			내→외 1/2		
폐기장 출토 수키와 10	선조문	중판/ 호상타날	-	○ 물손질	외→내 1/2		
폐기장 출토 수키와 11	태선문	장판/ 중방향		○ 물손질	내→외 1/2		사절흔
폐기장 출토 암키와 12	복합문	장판/ 중방향		○ 물손질	내→외 1/3		사절흔 예새흔
폐기장 출토 암키와 13	태선문	장판/ 중방향	광단부	○ 물손질	내→외 1/2		사절흔
구상유구 출토 암키와 19	선조문	장판/ 중방향	광단부/ 내면깎기		내→외 1/3		사절흔

경주 양월리 463-6번지 유적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조업한 기와가마로 중판타날기와에서 장판타날기로 제작기술이 변화한 모습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화문수막새와 함께 안강 구성에서 발견된 선문암막새를 함께 생산했다고 판단되며, 조업시기는 기와가마에서 출토된 주름무늬병으로 볼 때 9세기 중반~말로 추정된다.

5. 경주 문산리유적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7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사구역 II-가구역에서 나말려초시기의 기와가마 4기, 폐기장 3기가 조사되었다.²⁵⁾

기와가마의 요전부, 폐기장과 주변에서 동이, 대부완, 접시 등을 비롯한 각종 도기가 다수 출토된 점으로 볼 때, 기와와 도기를 함께 생산하는 겸업체계로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연화문수막새와 암·수키와와 토기편 등이며, II-가-3호 기와가마 요전부 출토 연화문수막새는 퇴화한 형식으로 등에 중판 격자문타날이 되었다.

25)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문산리 청동기시대 유적-II구역-』,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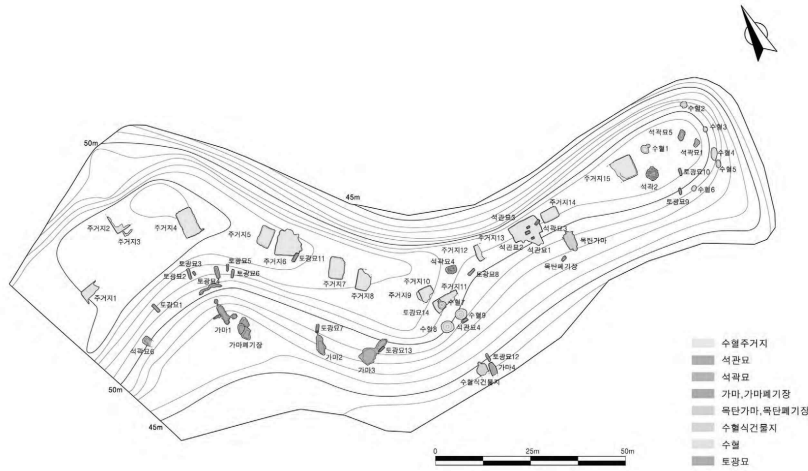


그림 6. 경주 문산리유적 유구 배치도(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보고자는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에서 조사된 기와가마에서 장판타날기와가 확인된 점을 근거로 중판타날기와와 장판타날기와가 함께 공반된 문산리유적의 기와가마의 조업시기가 빠를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림 7. 경주 문산리유적 출토유물(성림문화재연구원 2010)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의 타날문양은 선조문(Ⅰ), 어골문(Ⅱ), 복합문(Ⅲ), 격자문(Ⅳ), 무문양(Ⅴ)으로 구분되며, 내외측 모두에서 와도분할흔적이 확인되는 점과 수키와의 협단부가 각이 진 모습을 보여주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와의 제작 시기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말로 추정된다.

문산리유적에서 제작된 기와는 중판타날기와가 다 수를 접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장판타날기와가 확인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기와가마의 조업시기를 고려

표 14. 경주 문신리 유적 출토기와 세부 속성

종류	문양	타날판/ 타날방향	상면조정/ 범위	단부 조정	분할방법		점도관점 합흔
					와도흔	추가 깎기	
Ⅲ가-1호 가마 회구부 출토 암키와 61	선문/ 물손질	중판/ 호상타날	광단부/ 내면깎기		내→외 1/2		
Ⅲ가-1호 가마 회구부 출토 암키와 63	격자문/ 물손질	중판/ 호상타날	광단부 정면		내→외 1/2		
Ⅲ가-2호 가마 소성실 출토 수키와 115	물손질		광단부 정면		외→내 1/3		사절흔
Ⅲ가-2호 가마 소성실 출토 수키와 113	어골문	장판/ 종방향		○ 물손질	내→외 외→내 1/2		
Ⅲ가-2호 가마 소성실 출토 수키와 131	복합문	장판/ 종방향		○ 물손질	내→외 1/2		사절흔
Ⅲ가-2호 가마 소성실 출토 암키와 132	선문/ 물손질	중판/ 호상타날	광단부 정면	○ 물손질	내→외 1/2		

할 때, 중판타날을 사용하는 기와제작방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장판타날기와의 출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불국사 정보박물관 조성예정부지에서 동일한 타날문양의 기와가 확인된 점²⁶⁾으로 볼 때, 불국사에 기와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약 16km 내외 거리를 두고 위치했음이 밝혀졌다.

6. 경주 삼량사3길 유적

경주 성건동 309번지 일대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발굴조사 결과 통일 신라시대 건물지,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²⁷⁾ 이 중 폐와무지에서 중판타날기와의와 함께 확인된 장판타날기와는 등에 어골문을 타날한 암키와로 경주지역에서 확인

26) 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불국사경내정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발굴조사보고서』, 2007, 444쪽 도판 82-9, 450쪽 도판 88-10.

27)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삼량사3길유적』현장설명회자료1.

된 장판기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추정된다.²⁸⁾ 이 장판타날기와는 등무늬가 장판의 태선어골문으로 이후 고려시대의 기와에 나타난 어골문의 조형을 보여주며 함께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적어도 9세기경에는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삼랑사3길 유적은 경주 시내에 위치한 유적 중 장판타날기와가 실제로 사용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장판타날 기와의 출현시기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8. 경주 삼랑사3길 유적 출토 장판타날기와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2000)

표 15. 경주 삼랑사3길 유적

종류	문양	타날판/ 타날방향	상면조정/ 범위	단부 조정	분할방법		점토판접 합흔
					와도흔	추가 깎기	
폐외무지 출토 압기와	어골문/ 물손질	장판/ 중방향	광단부/?	○ 물손질	내→외 1/2		?

IV. 통일신라시대 기와생산과 장판타날기와 검토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 내 신라왕경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기와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판선조문이 타날된 평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당시 신라사회에서 한 종류의 기와를 사용한 점은 매우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신라만의 고유한 기와제작기술이 변화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은 당시 기술이 매우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직관」조를 살펴보면 신라는 내성(內省) 아래 속한 관사 중 기와와 토기를 제작하던 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瓦器典 景德王改爲陶登局 後復故 干一人 史六人.”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신라는 기와와 토기를 전담해서 생산하는 관사를 통해 기와와 토기를 공급했다²⁹⁾고 생각할

²⁸⁾ 차순철, 「경주지역 평기와의 타날형태변화에 대한 검토 - 단편 · 중판 · 인장 그리고 장판으로」, 『문화재』 제40호, 2007, 81쪽.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물에 기와를 사용한 경우는 국가에서 기와를 지원하거나 사찰 등에서 기와가마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경우²⁹⁾ 외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당시에 기와가마와 소비처 사이에 이루어진 공급관계를 살펴보면 소비처 안에서 이루어진 기와 사용의 구분문제³⁰⁾와 공급처인 기와가마들과의 공급방법³¹⁾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결국 어떤 소비지에 어떤 기와를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공급방법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신라 왕경 내 소요 기와는 내성에 소속된 와기전(瓦器典)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고 지방 관사나 사찰 등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와장(瓦匠) 등을 통해서 현지 생산하는 방법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와생산이 확대되면서 지방에 건립된 관청과 사원들에 기와를 공급하기 위해 주변에 기와가마를 만들고 경주에서 만든 것과 같은 기와를 생산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와장의 파견을 통해서 기와 생산이 이루어졌지만 지방에도 고유의 와장들이 존재했으므로 당시 지방에서 이루어진 기와생산은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된 기와생산체제 안에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신라기와에서 장판타날기와는 기와제작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앙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인숙은 앞서 논문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생산에서 장판타날판으로 변화하는 시점은 늦어도 신라 문성왕 9년(847)이며, 상한은 장도 청해진유적으로 볼 때 신라 흥덕왕 3년(828) 이전까지 소급된다고 보았다. 또한 타날판의 형태에서

29) 김유식, 「7~8세기 신라 기와의 수급」,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국립경주박물관, 2000, 237쪽.

30) 경주 분황사 경내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기와가마 2기와 안강 갑산사지 사역 내에서 확인된 기와가마의 존재를 통해 사찰수공업 공방 안에 기와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31) 기와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사용에 따른 구분이다. 이러한 구분법은 기와가 제작·사용된 배경과 이후 사용처간에 이루어진 교류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기와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차순철, 「경주지역 사원출토 평와의 수급관계 고찰-전용와·공용와·교류와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제5집, 불교미술사학회, 2007.

區 分	瓦窯	使用處	用 度				
			創建瓦	重建瓦	重修瓦	修理瓦	再活用瓦
專用瓦	專用	單獨	○	○	○	?	
共用瓦	專用/一般	複數	○	○	○	○	
交流瓦	一般	複數/ 多數	?	○	○	○	
再活用瓦							○

32) 김지영, 2011, 상계논문.

각진 타날면(삼국시대~965년)과 등근 타날면(860년 이후)로 구분하고, 분할계선의 출현과 광단면 하단 내면 조정방법이 깎기에서 물손질로 변화하는 시점을 신라 헌안왕 4년(860)으로 추정하고 있다.³³⁾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장판타날기와를 살펴보면 타날판의 형태는 각진 형태를 보여주며, 광단부 하단 내면 조정방법은 물손질 정면이 확인되므로 장판타날기와의 제작시기는 신라 헌안왕 4년(860)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신라시대 장판타날기와를 살펴보면 익산 미륵사지 출토 <庚辰年五月廿(日)法得書>명 기와³⁴⁾(716년, 신라 성덕왕 15년), 부여 부소산성 출토 <肅昌七年丁卯年末印>명 기와³⁵⁾(847년, 신라 문성왕 9년), 청주 흥덕사지 출토 <大中三年>명 기와³⁶⁾(855년, 신라 문성왕 11년), 신라 장도 청해진 출토품³⁷⁾, 광주 무진고성 하층 건물지 출토품³⁸⁾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어골문이 확인된 청주 흥덕사지 출토 <大中三年>명 기와이다. 일반적인 선조문과 달리 어골문이 이미 9세기에 출현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내면에 사절흔적이 관찰되는 점은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내 기와가마에서 출토된 장판타날기와와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장판타날문양은 이 시기에 이미 다양한 문양을 장판타날판에 적용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홍성 석성산성³⁹⁾의 경우에는 <沙羅瓦草>, <沙良官>, <沙尸良>명 명문을 물손질된 기와등에 장판타날로 타날했고, 광양 마로산성 건물지⁴⁰⁾ 출토 <馬老官>명 기와는 사격자문 안에 장방형곽을 만들고 안에 명문을 배치했지만, 서울 호암산성 건물지⁴¹⁾에서 출토된 <仍大內>명 기와의 경우 중판타날로 명문을 타날한 모습이다. 각 지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장판타날기와를 살펴보면 지방에서도 중판타날기와와 장판타날기와의 타날판의 사용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 명문와는 신라 흥덕왕 3년(828)~신라 헌안왕 4년(860) 경

33)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한국고고학보』제54집, 한국고고학회, 2004, 77~78쪽.

3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 1996.

김창호, 『익산 미륵사 경진명 기와로 본 고신라 기와의 원형』, 『한국학연구』제1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3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서Ⅲ』, 1999.

36) 청주대학교박물관, 『청주흥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86.

37) 국립문화재연구소, 『장도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 2002.

38) 전남대학교박물관, 『무진고성 I』, 1989.

전남대학교박물관, 『무진고성Ⅱ』, 1990.

39) 상명대학교박물관, 『홍성 석성산성 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1998.

40)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 I-건물지 I』, 2005, 104쪽 도면 37 No.175.

41) 서울대학교박물관, 『한우물 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1990, 179쪽 도면 65.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하대에 당시의 기와생산 체계가 지역별로 다르게 발전하고 있던 상황을 알려준다.

경주지역 내 6개 기와가마유적에서 출토된 장판타날기와를 살펴보면 주로 선조문, 어골문, 복합문을 중방향으로 타날을 했고 광단부 내면은 깎기 또는 정면을 했다. 협단부의 단부는 물손질로 정면을 했고, 점토판 분리를 위해서 사절작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외면 정면을 위한 물손질이 일반적이다. 중판타날선 조문기와의 비교할 때, 수키와의 경우 협단부에 각을 지우는 모습이 사라지는 점은 하나의 특징으로 보인다. 타날흔적을 물손질로 지우거나 수키와의 길이가 길어지는 모습은 기와제작을 위한 와통의 크기가 바뀌거나 제작방법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당시 건축에 사용하는 척의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신라기와는 중판타날을 기본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국가에서 기와생산과 유통을 관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하대된 9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와 등에 중판타날이 아닌 장판타날이 이루어진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시기가 언제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로 볼 때,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은 기와가마에서는 장판타날판을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지만, 외곽지역인 건천읍 방내리, 모량리, 안강읍 양월리, 외동읍 문산리지역에 소재한 기와가마에서는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와 함께 장판타날기와가 제작되었다. 기와가마에서 장판타날판이 사용된 시기가 유적에서 공반된 막새보다 늦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사용한 모습이 확인되므로, 통일신라시대 하대에 들어오면서 장판타날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기와가마에서 제작에 사용한 타날판의 차이가 나타난 점은 신라의 중앙관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새로운 경제지원을 받은 기와가마에서 변화를 도모한 모습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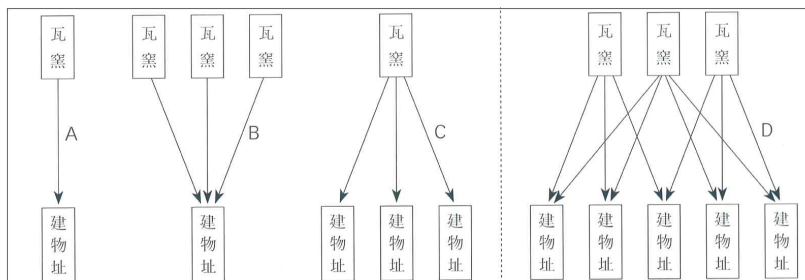


그림 9. 기와의 수급관계 유형도(김지영 2011)

이 크며, 당시 신라 사회의 혼란 속에서 기와공방의 유지를 위한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런 변화가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는 조사사례의 증가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라 하대에 중앙관서의 관리를 받는 기와가마와 지방에서 관리감독의 영향이 덜 미치는 기와가마 사이에서 나타난 선별적인 차이로도 볼 수 있다. 결국 기와의 생산과 수급문제는 <그림 9>처럼 매우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와의 수급관계를 고려할 때, 신라왕경⁴²⁾에 기와를 공급했던 기와가마들은 통일신라시대 후기까지도 내성에 속한 와기전(瓦器典)의 관리감독아래에서 중판타날기와를 생산했다고 보이며, 신라왕경 외곽⁴³⁾에 위치한 기와가마들은 이러한 와기전의 관리감독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통일신라시대 하대로 접어들면서 내성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기와가마가 다수 출현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성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된 것은 신라사회의 혼란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신라 헌덕왕 14년(822)에 일어난 김현창의 난, 흥덕왕 사후의 왕위계승과정의 혼란 등은 신라왕실과 관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상실하면서 각지에서 통일된 중판타날기와를 생산하던 기와가마들이 각 지역의 호족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혼란상황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전국에서 제작된 「官」자명 명문와의 존재 통해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들 명문와가 출토된 사례를 살펴보면 산성이거나 사찰 등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삼국시대 당시의 옛 지명과 「官」자가 같이 결합되어서 사용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⁴⁴⁾ 이러한 「官」자명 명문와의 출현 원인으로는 통일신라말기 각 지역에서 활동한 지방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기반인 각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출신지역 또는 기반지역 이름을 기와에 기록함으로써 당시 이러한 공사를 행한 주체를 밝힘과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타 지역과의 차별의식을 심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42) 신라왕경의 범위는 경주 월성을 중심으로 동쪽은 보문들, 서쪽은 태종 무열왕릉 서쪽에 위치한 장산고개, 남쪽은 경주남산 남서쪽에 위치한 남리사지(전 염불사지), 북쪽은 천북면 신당리 남쪽(경주 신당리 유적)으로 추정된다. 다만 남쪽의 경우에는 통일신라시대 사찰과 왕릉이 조성되면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외동읍 말방리 일대까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3) 신라왕경 외곽지역은 위에서 설정한 신라왕경 바깥쪽을 지칭하며, 기와가마의 입지로 본다면 천북면 신당리, 건천읍 방내리, 모량리, 외동읍 문산리, 안강읍 양월리 지역 등이다.

44) 차순철, 「「官」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경주문화연구』제5집, 경주대 문화재연구소, 2002, 127~128쪽.

할 때 신라왕실과 내성을 비롯한 각 관사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방호족들이 관을 참칭하면서 만든 「官」자명 명문화를 비롯한 장판타날기와 제작기술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규격화된 중판타날기와 제작은 종언을 구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당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중앙 관사인 내성의 감독 아래 규격화된 중판타날기와를 제작하던 기와가마들 중 내성(와기전, 도등국)의 관리감독이 약화되거나 상실된 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와 제작기술인 장판타날기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며, 그 시기는 다른 지방의 장판타날기와의 제작시기와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내 기와가마의 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신라 헌덕왕 14년(822) 이후로 추정된다.

V. 맺음말

통일신라시대 경주지역에서 장판타날기와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문제는 하나의 새로운 기와제작기술이 도입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국가의 직접 관리체제 아래에 있던 기와제작기술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당시 공통된 제작기술을 유지하던 기와생산체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모습을 보여준다.

중판타날기와라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기와가 생산되던 신라사회에서 중앙관사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왕경 외곽 또는 지방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와 제작기술인 장판타날기와가 생산된 점은 건물에 사용하는 기와의 기준이 변화된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시기는 분명한 연대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경주 외곽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여러 기와가마 출토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를 중심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기존에 사용되던 중판타날기와 생산이 종언을 구하고 새롭게 장판타날기와가 사용된 원인은 단지 기와 크기가 커지는 모습보다도 기와제작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같은 변화가 함께 수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왕경에 기와를 공급했던 기와가마들은 통일신라시대 후기까지도 내성에 속한 와기전의 관리감독아래에서 중판타날기와를 생산했으며, 신라왕경 외곽에 위치한 기와가마들은 이러한 와기전의 관리감독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원인은 당시 정치혼란과 호족세력의 출현과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모습의 차이를 통해서 중앙 왕권의 쇠퇴와 지방호족들의 흥

기를 엿볼 수 있다. 그 결과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와제작기술인 장판타날기와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며, 그 출현시기는 다른 지방의 장판타날기와의 제작시기와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내 기와가마의 연대측정결과를 고려할 때, 신라 헌덕왕 14년(822) 이후로 추정된다.

■ 투고일 2020년 02월 24일 | 심사완료일 2020년 04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22일 ■

참고문헌

1. 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음양리·사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유적-』, 2002
- 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불국사경내성보박물관건립예정부지발굴조사보고서』, 2007.
- 경주시·국립경주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경주시-』, 2008.
- 계림문화재연구원, 『경주 신당리 산7번지 유적-공장신축부지-』, 2015.
- 국립문화재연구소, 『장도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 2002.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 1996.
-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삼량사3길유적』현장설명회자료1.
- 상명대학교박물관, 『홍성 석성산성 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1998.
- 서울대학교박물관, 『한우물 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1990.
- 성림문화재연구원, 『경주 문산리 청동기시대 유적-Ⅱ구역-』, 2010.
- 순천대학교박물관, 『광양 마로산성 I-건물지 I』, 2005.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의 문화유산XII-경주 양월리 463-5번지 내 유적』, 2010.
- 영남문화재연구원, 『경주 용강동 원지유적』, 2001.
- _____,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2007.
- _____, 『경주 방내리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구간 내 경주 방내리 기와가마 유적』, 2014.
- 전남대학교박물관, 『무진고성 I』, 1989.
- _____, 『무진고성Ⅱ』, 1990.
- 청주대학교박물관, 『청주흥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86.
- 한국도로공사·한빛문화재연구원,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제4공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경주 조전리~울동유적Ⅱ -경주 방내리 유물산포지 외 10개소(본문)-』, 2018.

2. 논문

- 김유식, 「7~8세기 신라 기와의 수급」,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국립경주박물관, 2000

- 김성구, 「다경와요 출토 신라와전소고」, 『미술자료』33호, 국립중앙박물관, 1983.
- 김지영, 「경주지역 삼국~통일신라시대 막새기와의 유통」, 『영남문화재연구』24, 영남문화재연구원, 2011.
- _____, 『경주지역 신라 평기와 유통체계의 변화』,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창호, 「익산 미륵사 경진명 기와로 본 고신라 기와의 원형」, 『한국학연구』제10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 박홍국,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 와요지와 출토와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5호, 영남고고학회, 1987.
- 유환성, 「경주 출토 나말려초 사찰명 평기와의 변천과정」, 『신라사학보』19, 신라사학회, 2010.
-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4.
- _____,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한국고고학보』제54집, 한국고고학회, 2004.
- 조성윤, 「경주 출토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제작시기와 그 의미」, 『불교고고학』제2호, 위덕대학교박물관, 2002.
- _____, 「경주 출토 중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제작시기와 그 의미」, 『불교고고학』2,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2.
- _____, 「신라 장판 타날문양 평기와의 경주제작여부에 대하여」, 『이화사학연구』30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 _____, 「신라 와로 본 안압지 축조에 대하여」, 『불교고고학』제6호, 위덕대학교박물관, 2006.
- 차순철, 「「관」자명 명문와의 사용처 검토」, 『경주문화연구』제5집, 경주대 문화재연구소, 2002.
- _____, 「경주지역 평기와의 타날형태 변화에 대한 검토-단판·중판·인장 그리고 장판으로-」, 『문화재』제4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_____, 「경주지역 사원출토 평과의 수급관계 고찰-전용와·공용와·교류와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제5집, 불교미술사학회, 2007.
- _____, 「경주 월성 출토 토기구연암막새에 대하여」, 『신라기와의 편년』제15회 한국기외학회 정기학술대회, 국립경주박물관·한국기외학회, 2018.
- 최맹식, 「통일신라 평기와 연구」, 『호서고고학』6·7합집, 호서고고학회, 2002.

- 최영희, 「신라 고식수막새의 제작기법과 계통」, 『한국상고사학보』제70호, 한국상고사학회, 2010,
- _____, 「통일신라식기와의 성립과 조와체제의 변화」, 『영남고고학』70호, 영남고고학회, 2014.
- 최태선, 『평와제작법의 변천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Roof Tile with Large Paddle-beat Pattern in Gyeongju Region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Cha, Soon-Chul

The question of when the use of the roof tile with large paddle-beat pattern had begun in Gyeongju region during the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is a matter of the change in the roof tile production which were managed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a new production technology. In other words, this indicates that the roof tile production system that maintained a common production technology at the time changed for some reason.

Silla used roof tiles with medium paddle-beat pattern. However, when the central control grew weak, new roof tiles with large paddle-beat pattern were produced mostly in the outskirts of the royal capital and rural areas, which brought changes to the standards for the roof tile. This change could not be confirmed through chronological data, however,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artifacts excavated from a variety of roof tile kilns that were excavated and investigated in the outskirts of Gyeongju.

The roof tile kilns that supplied roof tiles to the royal capital of Silla until the late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produced roof tiles with medium paddle-beat pattern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Roof Tile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but it is quite likely that the roof tile kilns located in the outskirts were outside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authority. This is related with the political disorder and the emergence of powerful clans.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of the roof tiles with large paddle-beat pattern began in the outskirts of

Gyeongju, which is estimated to be after the 14th year in the reign of King Heondeok of Silla (822) considering the excavations in rural areas and the dating of the remains of the dwellings in Bangnae-ri, Gyeongju.

Key Words : Unified Silla Dynasty period, Gyeongju, oof tiles with medium paddle-beat pattern, roof tile with large paddle-beat pattern